

시선의 시선

in 수능특강

1회

독서 + 문학

2027학년도



시선
국어연구소

시선의 시선 in 수록 : 시적 대상 or 상황

- 현대시: 김수영, 「그 방을 생각하며」 : 화자의 정서

01) 작품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 ◆ 1연: 혁명이 좌절되고, 방만 바꾸어 버린 화자가 혁명을 생각하고 있음
- ◆ 그 방: 표현 그대로 '방(room)'으로 봐도 문제없지만, 이는 화자의 내면 세계를 형상화 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음. 따라서 방을 바꿔 버린 것은, 화자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난 것.
- ◆ 어둠: 암울한 현실(시대적) 상황
- ◆ 싸우라는 말: 혁명에 대한 의지, 그 방에 존재하는 것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 ◆ 2연: 화자의 가슴이 메말랐지만, 여전히 '일하라는 말'이 울리고 있음
- ◆ 노래: 화자가 그 방에 남기고 온 것이자 내면이 변화하게 된 화자가 잊어버린 것임.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 ◆ 3연: 혁명이 안 되고 방만 바꾼 화자가,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음
- ◆ 펜과 뼈와 광기: 녹슬은 것이다. 즉 오래된 것이며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음. 이들은 '실망'과 동치라고 시인은 적었다. 이 펜과 뼈와 광기가 가볍다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듯함.
- ◆ 실망의 가벼움은 '역사'일지도 모르는 것! 즉, 어떠한 내력을 담고 있는 대상일지도 모르는 것이며, 화자는 이것을 자신의 재산으로 삼았음. 즉, 소유한 것이라 여기는 것.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배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 ◆ 4연: 혁명이 안 되고 방만 바꾼 화자가 의지 대신에 쓰디쓴 감정만 느끼고 있음
- ◆ 달콤한 의지의 잔재: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의 흔적. 불이 꺼지고 남은 재와 비슷한 것이라고 이해해도 좋음.
- ◆ 되살아난 쓰디쓴 냄새: 혁명에 대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되살아난 것. 주목할 것은 '다시 되살아난 것'이라는 거다. 과거에도 쓰디쓴 담배진 냄새가 살아있던 적이 있었던 거다. 또한 화자의 정서는 의지적 태도보다는 회의적인 태도에 더 가깝겠다.
- ◆ 마지막의 '지만'에 주목하여 어떠한 반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음.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 ◆ 5연: 화자가 많은 것을 상실해 버림.
- ◆ '도'에 주목하여 뒤에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주면 좋음. 앞서 무언가를 상실한 부정적 상황이 제시되었으니 반전이 있다면 긍정적인 것이 제시될 것임.
- ◆ 5연에서 제시된 시적 상황은 현재 일어난 실제 상황에 대한 진술일 수도 있고, '내가 그것마저 잃어도~'와 같이 부정적 상황을 가정한 가정적 진술일 수도 있음.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김수영, 「그 방을 생각하며」-

- ◆ 6연: 이제 화자가 기뻐하고, 가슴이 무언가로 풍성하게 됨.
- ◆ 화자에게 정서적 변화가 일어나, '쓰디쓴 담배진 냄새'의 정서에서 기쁘고 풍성한 상태의 정서로 변화하였음. 이는 '방'을 바꾸어 버린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임.

02) 분석

◆ 시적 상황

: 혁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방만 바꿈.

◆ 화자의 정서

: 회의적 태도 → 기쁨과 충만함의 정서

◆ 주요 대상

: 방 - 화자의 내면이자, 변화의 대상

◆ 주목할 만한 표현상의 특징

① 유사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등)

② 어미를 통한 명령적 어조

(‘싸우라 싸우라’ / ‘일하라 일하라’)

③ 미각적 이미지와 후각적 이미지의 활용

(미각적 이미지-‘달콤한’, ‘쓰디쓴’ /
후각적 이미지 - ‘담뱃진 냄새’)

◆ 이해의 바탕

1) 4.19 혁명과 김수영의 시세계

—<보 기>—

김수영의 시세계는 4.19 혁명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는다. 초기작들이 현대 도시 문명의 소외를 비판했다면, 4.19 혁명 이후의 작품들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자유를 향한 저항 정신을 본격적으로 드러낸다. 이때 「그 방을 생각하며」는 이러한 저항 정신을 거창한 투쟁의 구호로 외치기보다는, 혁명의 좌절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이 겪는 내면의 변화에 집중한다. 시인은 혁명이 실패한 현실 속에서 혁명의 구호들이 ‘헛소리’로 전락해버린 상황을 직시한다. 나아가 혁명을 이루지 못하고 ‘방’이라는 일상적 공간으로 물러난 자신의 무력함을 자조하면서도, 상실과 실망을 대면함으로써 그것에 안주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다.

2) 방이라는 공간과 실망의 가벼움

—<보 기>—

「그 방을 생각하며」에서 ‘방’은 화자의 내면 세계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라는 구절을 통해 이러한 해석은 더욱 타당성을 얻는다. 혁명을 완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적 화자는 ‘쓰디쓴 담뱃진 냄새’로 형상화되거나 ‘녹슬은 실망’으로 표현되는 정서를 느끼며,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화자는 이러한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으며 ‘역사’가 될지도 모른다고 여기는데, 녹슬은 실망을 미래를 위한 토대로 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잃어버림으로써 비어버린 방에 다른 것들이 들어차며 그 방은 ‘풍성하게’ 되는데, 이는 마지막 연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적 화자가 혁명의 미완으로 인한 회의나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미래에 대해 나름의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선의 시선 in 수특

- 고전시가: 정훈, 「월곡답가」

시적 대상 or 상황

화자의 정서

00) 원문

넷 사람 이젯 사람 耳目口鼻(이목구비) 꺾건마는
나 혼자 어찌하여 넷 사람 그리는고
이제도 넷 사람 겨시니 그 내 벗인가 호노라
<제1수>

내 양즈 하 험하니 비노 성격 아니 하니
분 바른 각시님네 다 웃고 든니거든
엇스제 지나간 한 분이 호자 곱다 호노라
<제2수>

게서 有信(유신)하면 내 호자 無信(무신)홀가
百年(백년) 前(전)의란 들히 다 밋사이다
世上雲雨(세상운우) 人情(인정)이야 비홀 주리 이시라
<제3수>

靑松(청송)으로 울홀 삼고 白雲(백운)으로 帳(장) 두르고
草屋三間(초옥삼간)이 숨어 겨신 저 내 벗님
胸中(흉중)에 邪念(사념)이 업스니 그를 스랑호노라.
<제4수>

벗님 사는 짜홀 싱가고고 바라보니
龍湫洞(용추동) 밧끼오 구름 드리 우히로다.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호자 든너 오노라.
<제5수>

들이 밧근 제논 잔을 들고 심각하고
時節(시절)이 흐른 제논 京(경)을 보고 그리노라
살음이 덜 괴운 타스로 니칠 저기 저거라
<제6수>

미흔 疊疊(첩첩)하고 구름은 자자시니
故人(고인)의 집 짜히 바라도 불성 업다.
밧음만 길 알아 두고 오락가락 호노라
<제7수>

에서 그리는 뜻을 제서 아니 모로는가
무든히 고은 님 덧 업시 녀희올 덧
하로밤 더 새고 간 후에 다시 불가 호노라
<제8수>

商山(상산)의 菜芝(채지)허러 브디 네히 가리런가
조르리 업스디 우리 들히 가사이다
세상의 어즈로운 일들 듯도보도 마사이다
<제9수>

방장산(方丈山) 기웁에서 신선(神仙)님네 만나신가
엇부시 보와든 내 말슴 傳(전)하쇼셔
산중(山中)에 트시는 청학(靑鶴)을 나도 트다 엇더 호리.
<제10수>

-정훈, 「월곡답가」-

01) 작품

옛 사람과 이젯 사람이 이목구비는 같건마는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는고
지금도 옛 사람 겨시니 그 내 벗인가 호노라
<제1수>

- ◆ 1수: '옛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친밀감
- ◆ 옛 사람과 이젯 사람을 대비하고 옛 사람에 대해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음.

내 양이 하 험하여 비위 상하여 꺼리니
분 바른 각시님네 다 웃고 다니거든
엇스제 지나간 한 분이 혼자 곱다 호노라
<제2수>

- ◆ 2수: 다른 사람과 달리 자신을 곱다고 하는 엇스제 지나간 분
- ◆ '분 바른 각시님'과 '엇스제 지나간 한 분'의 반응을 대비하고 있음. 엇스제 지나간 한 분이 '옛 사람'이자, 후술될 벗님임을 생각해 볼 수 있음.

거기서 유신(有信)하면 내 혼자 무신(無信)할가
백년 전까지 들이 다 밋사이다
세상운우(世上雲雨)* 인정이야 배울 주리 있으라
<제3수>

- * 세상운우: 세상 사람들의 인심이 비구름처럼 변덕스러움을 의미.
- ◆ 3수: 상대방과의 변치않을 믿음을 약속
- ◆ 상대방이 자신을 믿으면, 자신도 믿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
- ◆ '세상운우 인정': 세속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입과 변치 않고 믿음을 갖겠다는 의지를 동시에 드러내는 것.

靑松(靑松)으로 울을 삼고 白雲(白雲)으로 장 두르고
초옥삼간에 숨어 겨신 저 내 벗님
흉 중에 사념이 없으니 그를 사랑호노라.
<제4수>

- ◆ 4수: 자연에 은거하고 있는 벗님에 대한 사랑
- ◆ 사념: 옳지 못하고 그릇된 생각을 의미. 이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 정도의 의미.
- ◆ 청송과 백운, 초옥삼간: 벗님이 은거하고 있는 공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소재. 그 공간은 자연임.

벗님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용추동 밖이오 구름 다리 위로다.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노라.
<제5수>

- ◆ 5수: 벗님이 사는 곳이 멀리 있어, 꿈에서만 외롭게 만나는 화자
- ◆ 벗님과 화자의 물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벗과 만나고 싶어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달이 밝은 때는 잔을 들고 생각하고
시절이 좋은 때는 경(京)을 보고 그리노라
사람이 덜 괴운* 탓으로 잊힐 적이 적어라

<제6수>

* 괴운: 사랑하는

- ◆ 6수: 벼를 그리워하고 잊지 못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
- ◆ 경: 서울을 뜻함. 벼와 화자에게 의미가 있는 공간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 ◆ 괴운: '사랑하는'이라는 의미로, 마지막 연은 사랑할 다른 사람이 없어서 벼님 생각만 계속 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되는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고인(故人)의 집 땅이 바라도 볼 성 없다.
마음만 길 알아 두고 오락가락 하노라

<제7수>

- ◆ 7수: 벼님이 있는 곳을 바라보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고 싶지만 못 가는 화자
- ◆ 피와 구름: 화자와 벼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부정적인 대상.
- ◆ 고인: 1연의 '옛 사람'이자, 맥락상 벼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화자는 현실에서 벼님을 만나러 갈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간절히 만나러 가고 싶어 하고 있음.

에서 그리는 뜻을 저서 아니 모르는가
무던히 고운 님을 덧없이 여윌 듯하여
하룻밤 더 새고 간 후에 다시 볼까 하노라

<제8수>

- ◆ 8수: 벼님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에 대한 소망

상산(商山)의 채지(菜芝)하러* 부디 넷이 가리런가
좃을 이 없는데 우리 둘이 가사이다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 듣도 보도 마사이다

<제9수>

* 상산의 채지하러: 상산으로 지초를 뜯으러, 고사 상산사호를 두고 한 말. 상산사호는 중국 진시황 때 난리를 피해 산시성 성산에 들어가서 숨은 네 사람을 이룸.

- ◆ 9수: 벼와 함께 속세를 떠나 함께 있고 싶은 마음
- ◆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이라며 세속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

방장산(方丈山) 기슭에서 신선님네 만나신가
얼핏 보아든 내 말씀 전하소서
산중에 타시는 청학(靑鶴)을 나도 타다 어떠하리.

<제10수>

-정훈, 「월곡답가」-

- ◆ 10수: 자연에서 지내는 신선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
- ◆ 청학: 자연과 신선에 대한 화자의 동경을 드러내는 소재.

02) 분석

◆ 시적 상황

사랑하는 벼와 이별하여 벼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 이때, 벼는 실존 인물 혹은 '월곡'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 주제 의식

벼이자 월곡에 대한 우정 이상의 사랑과 동경하는 마음

◆ 표현상의 특징

① 두 대상을 대비하는 방식

(옛 사람과 vs 이제 사람 / 분 바른 각시님 vs 옛그제 지나간 한 분)

② 영탄적 어조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는고)

③ 설의적 표현

(내 혼자 무신할가, 배울 주리 있으랴, 저서 아니 모르는가)

④ 대구의 형식

(달이 밝은 때는 잔을 들고 생각하고

- 시절이 좋은 때는 경을 보고 그리노라 → A할 때는 B한디의 형식)

◆ 이해의 바탕

1) 월곡답가라는 작품

<보 기>

「월곡답가」는 월곡에게 보내는 답가의 성격을 지녔다. 작품의 월곡이 당대 의병장인 우배선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추측되지만 확실시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작자의 다른 작품에서 정훈이 의병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졌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지는 않다.

2) 월곡답가에서 '벼'의 이해

<보 기>

「월곡답가」에서 '벼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 은거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외면 대신 내면을 보고 화자를 곱다고 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러한 벼에게 친밀감을 드러내고 만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벼의 면모가 화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면모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벼를 가리켜 '고인'이라는 표현이 '죽은 사람'과 '오래된 벼'이라는 두 뜻을 지니는 것과 벼와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에서 화자에게 벼는 재회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시선의 시선 in 수록

-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옹고집전』

01) 줄거리 요약

옹진골 옹당촌에 사는 옹고집은 엄청난 부자이지만, 성격이 매우 괴팍하고 인색하다. 80세 노모가 병들어 돌보지 않는 불효자이며, 특히 불교를 몹시 싫어하여 구걸하러 온 스님들을 매질하고 꿀탕 먹이는 악행을 일삼는다.

옹고집의 행패를 듣고 화가 난 취암사의 도사는 제자 학대사를 보낸다. 하지만 학대사마저 옹고집에게 매를 맞고 쫓겨나자, 도사는 짚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부적을 붙인다. 이 허수아비는 진짜 옹고집과 똑같이 생긴 '가짜 옹고집'으로 변해 옹고집의 집으로 찾아간다.

집안에 두명의 옹고집이 생기자 가족들과 관가(사또)는 누가 진짜인지 가리려 한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똑같이 구분이 불가능했다. 진짜 옹고집보다 가짜 옹고집은 집안의 세세한 재산 목록과 은밀한 일들까지 줄줄 꿰고 있어 오히려 더 진짜처럼 보였다. 진짜 옹고집은 대답을 제대로 못 해 '가짜'로 몰려 곤장을 맞고 자기 집에서 쫓겨나 거지가 된다.

집을 빼앗기고 사방을 떠돌며 구걸하던 진짜 옹고집은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자신의 지난 과오를 뼈저리게 후회한다. 노모를 박대한 불효와 스님들을 괴롭힌 악행을 반성하며 목숨을 끊으려던 순간, 산속에서 도사를 만나게 된다.

도사는 뉘우치는 옹고집에게 부적 한 장을 주며 집으로 돌아가라 지시한다. 옹고집이 집에 들어가 부적을 던지자, 가짜 옹고집과 그가 낳은 수많은 자식은 순식간에 짚더미(허수아비)로 변한다. 다시 제자리를 찾은 옹고집은 이후 노모에게 효도하고 불교를 공경하며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02) 핵심 포인트 정리

① 서술상의 특징

◆ 편집자적 논평

EX) '불측한 고집이놈, 어미 말에 대꾸하되'

옹고집이 대답하기 전, 서술자가 그를 미리 '불측한 놈'이라고 평가하며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 장면의 극대화

EX) '논발 곡식 합하여 이천 백 석이요, 마굿간에 기마가 여섯 필이요, 암수돼지 합하여 스물 두 마리요... 안성 방자유기 열 필이요... 천자·당음·당률·사략... 주벽·총목까지 쌓아 두었소이다.'

- 가짜 옹고집이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기 위해 재산과 서적 목록을 끊임없이 나열(열거)하고 있다. 이는 판소리계 소설에서 독자에게 정보의 풍성함과 웃음을 동시에 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Tip : 이렇게 비슷한 정보가 나열될 때는 같은 맥락임을 인지하고 빠르게 읽어서 넘기면 된다.

◆ 비속어와 고사성어의 혼용

EX) '네놈 마음 고약하여 부모 은혜 배반하고... 아미타불 거짓 공부하는 듯이... 불충불효 태심하며...'

② 주요 소재

◆ 짚 한 단

도술을 통해 가짜 옹고집으로 변하는 근원 물질. 옹고집이 쌓아온 부와 권세가 '짚 한 단'처럼 하찮은 것임을 암시한다.

◆ 부적

가짜를 물리치고 진짜를 되찾아주는 도구. 절망(자살 결심)에서 희망으로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다. 인간의 힘(사또의 재판)으로 해결 못한 문제를 종교적·초월적 힘으로 해결하는 고전소설의 전기성을 보여준다.

③ 옹고집의 성격 변화

옹고집은 작품 초반, 자신의 부만 믿고 천륜을 저버리며 불교를 박해하는 전형적인 '평면적 악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물질적 가치에만 집착하여 병든 노모를 외면하고 종교적 자비를 비웃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고수한다.

EX) '팔십 당년 늙은 모친은 병들어 누워 있거늘 불효 막심 옹고집은 닭 한 마리, 약 한 첩도 봉양을 아니 하고... 또한 불교를 업신여겨 허물없는 중을 보면, 결박하고 귀 뚫기와 어깨 타고 뜯질하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도술로 만들어진 가짜에게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비참한 거지 신세로 전락하는 시련을 겪으며 성격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길바닥을 떠돌며 최하층의 삶을 직접 체험한 옹고집은 비로소 자신이 노모와 승려들에게 저질렀던 악행을 역지사지의 처지에서 뼈저리게 후회하는 처절한 성찰의 단계에 진입한다.

EX) '가슴을 탕탕 치며 대성통곡하며 하는 말이, "답답하다 내 신세야! ... 나는 죽어 썩 놈이로되, 당상학발 우리 모친 다시 봉양하고 싶고... 옛일을 생각하매 오늘이 옳으며 어제는 잘못임을 깨닫고 옛집을 다시 찾아오니 죽을 마음 전혀 없다."

결국 도사라는 초월적 존재를 통해 구원받은 그는 사회적 도리와 종교적 경외심을 갖춘 선인으로 완전히 거듭나며 인간성을 회복하게 된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과천선하는 옹고집의 모습은, 단순한 권선징악을 넘어 독자에게 강력한 유교적·도덕적 가르침을 전달하는 입체적 인물의 전형을 완성한다.

EX) '도승의 술법에 탄복하여, 옹좌수 그로부터 모친께 효성하며 불도를 공경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일 많이 하니, 모두들 그 어짙을 칭송하여 마지아니하였다.'

해당 포인트로 편집되어 출제된다면, 옹고집이 쫓겨난 후 내뱉는 탄식 속의 내면적 성장이 출제 지점일 수 있겠다.

03> 정리

이 작품은 진짜와 가짜가 주인 자리를 두고 다투는 '진가쟁주' 모티프를 활용한 대표적인 송사 소설이다. 작품 전반에 걸쳐 짙으로 만든 허수아비가 사람으로 변하거나 도사의 부적 한 장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등 비현실적인 '전기적' 요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갈등을 해학적으로 풀어낸다. 특히 주인공 옹고집은 단순히 벌을 받고 끝나는 악인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며 선인으로 거듭나는 '입체적 인물'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실전에서는 관가에서의 재판 과정을 통한 사회 비판적 풍자와 옹고집이 거지 신세로 전락해 내뱉는 참회 대목 속에 담긴 심리적 변화를 연결하여 지문을 분석해야 한다.

시선의 시선 in 수특

- 사회 제재 : 리더십 이론과 동기 부여 이론

01) 리더십 이론의 전개

① 상황론적 리더십 이론

리더십은 고정된 능력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이나 구성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적합성'과 '유연성'의 문제라고 보는 관점이다.

② 주요 학자

피들러는 리더십의 효과가 리더 개인의 고정된 스타일과 그 리더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 즉 '적합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는 리더를 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 지향적 리더'와 구성원과의 유대감을 중시하는 '관계 지향적 리더'로 이분화했다. 이때 상황의 유리함을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로 리더와 구성원의 신뢰 관계, 업무의 명확성(구조화), 리더가 가진 인사권 등의 공식적 권한을 제시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상황이 리더에게 아주 유리하거나(호의성 높음) 아주 불리할 때(호의성 낮음)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업무 지향적 리더가 성과를 내며, 상황이 그 중간 정도일 때는 유연하게 소통하는 관계 지향적 리더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허시와 블랜차드는 리더의 스타일이 고정되어 있다는 피들러의 전제를 비판하며, 리더는 구성원의 발달 상태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구성원의 성숙도를 업무 능력(역량)과 업무 의지(심리적 상태)로 세분화했다. 역량과 의지가 모두 낮을 때는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지시형'이, 역량은 부족하나 의욕이 넘칠 때는 소통과 지시를 병행하는 '코치형'이 효과적이다. 반대로 역량은 충분하지만 의지가 꺾인 상태라면 의사결정에 참여시켜 동기를 부여하는 '지원형'이 필요하며, 역량과 의지가 모두 최고조에 달한 구성원에게는 전적으로 권한을 넘기는 '위임형' 리더십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둔다고 설명했다.

> OX 확인 퀴즈

- ① 피들러에 따르면 리더의 스타일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성격의 것이다. (O / X)
- ② 피들러의 이론에서 리더-구성원의 관계가 좋고 업무 구조가 명확할수록 상황의 호의성은 낮아진다. (O / X)
- ③ 피들러는 상황의 호의성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을 때보다 중간 정도일 때 업무 지향적 리더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O / X)
- ④ 허시와 블랜차드는 구성원의 역량과 의지가 모두 낮은 단계에서는 리더가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O / X)
- ⑤ 허시와 블랜차드에 따르면, 구성원의 역량은 충분하지만 의지가 꺾인 상태에서는 리더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위임형 리더십이 적합하다. (O / X)

③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를 단순한 거래로 보느냐, 아니면 영감을 주고받는 상호 변화의 과정으로 보느냐에 주목한다.

④ 주요 학자

번스는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를 단순한 기득권의 거래나 보상 체계로만 보았던 기존의 '거래적 리더십'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더가 구성원의 고차원적인 욕구와 창의성을 자극하여 그들의 가치관 자체를 변화시키는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을 세웠다. 리더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영감을 주는 멘토로서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리더 자신도 구성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함께 성장하는 상호 변화적 관계를 강조했다. 이후 바스는 이러한 번스의 이론을 보완하여,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혼합될 때 조직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통합적 관점을 제시했다.

02) 동기 부여 이론의 전개

⑤ 동기 부여 이론

리더가 구성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동기를 자극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⑥ 주요 학자

동기 부여 측면에서 로크는 '목표 설정 이론'을 통해 인간은 막연한 목표보다 구체적이고 난도가 있는 '도전적인 목표'가 주어졌을 때 의도적인 노력을 더 기울인다고 보았다. 특히 목표를 개인적으로 간직하기보다 타인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했을 때 그 책임감이 커져 성과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데시와 라이언은 '자기 결정 이론'을 통해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타인에 의해 주어지는 외적 보상(금전, 처벌 등)은 오히려 인간의 능동적인 즐거움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신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내적 동기'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리더는 자율권을 부여하고 칭찬과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 OX 확인 퀴즈

- ① 번스가 제시한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를 일종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보상 체계로 파악한다. (O / X)
- ② 번스는 변혁적 리더십에서 리더는 구성원에게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뿐, 리더 자신은 구성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O / X)
- ③ 바스는 번스와 달리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적절히 혼합하여 활용할 때 조직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통합적 관점을 가졌다. (O / X)
- ④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 따르면, 목표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일 때보다 누구나 달성하기 쉬운 정도로 평이할 때 사람들의 의도적인 노력을 더 이끌어낸다. (O / X)
- ⑤ 데시와 라이언의 자기 결정 이론은 금전적 보상과 같은 외적 보상이 인간의 내적 동기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O / X)

03> 연계 코멘트

소재는 단순하지만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해진다면 실전에서 버벅거릴 수 있는 지문이다. 수능에 완전히 같은 소재로 등장하지는 않겠지만 학자들의 의견 정도만 정리해서 넘어가도 실전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빠른정답

X X X O X

O X O X O

시선의 시선 in 수특

- 인문 제재 : 관념론과 유물론

01) 관념론의 전개

① 관념론

정신이나 관념이 근원적이며 물질에 우선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해당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는 마음이나 절대적 이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나 그림자에 불과하다.

② 주요 학자

플라톤은 변하지 않는 본질인 이데아만이 실재하며 현실의 물질 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라고 주장하였다.

조지 버클리 존재하는 것은 곧 지각되는 것이며, 인식하는 주체가 없다면 사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관적 관념론을 펼친다. 사물의 존재 근거를 개인의 마음이나 지각에 두는 것이며, 우리가 사과를 인식하는 것은 빨갱다, 달콤하다, 동그랗다 등 감각의 집합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각하는 주체, 즉 '나'가 없다면 사과도 존재할 수 없다. 정신이나 관념이 근원적이라고 보는 주장인 동시에, 세계와 주체의 관계에서 주체의 역할을 강조하기에 버클리의 관념론은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할 수 있다.

헤겔은 세계의 역사는 절대정신이 자기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주체와 객체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절대정신 안에서 통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는 개별의 주관적 인식을 넘어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절대정신의 자기 전개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헤겔의 관념론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관념론이라 할 수 있다.

> OX 확인 퀴즈

- ① 관념론은 정신이나 관념이 물질보다 더 근원적이며 세계의 본질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O / X)
- ② 관념론적 시각에 따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질 세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이다. (O / X)
- ③ 객관적 관념론에서는 주관적 관념론에서와 달리 사물의 존재 근거를 인식하는 주체의 마음이나 지각에 둔다. (O / X)
- ④ 객관적 관념론은 세계를 개별적인 개인의 인식을 넘어선 보편적인 정신의 전개 과정으로 이해한다. (O / X)
- ⑤ 관념론적 통합의 관점에서 주체와 객체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신적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된다. (O / X)

02) 유물론의 전개

③ 유물론

정신은 물질의 산물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해당 관점에 따르면 세계는 인간의 의식과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정신은 고도로 조직된 물질의 기능에 불과하다.

④ 주요 학자

데모크리토스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전제 아래서 세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세계는 더 쪼개질 수 없는 원자와, 그 원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빈 공간인 허공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또한 사물의 맛, 모양은 원자의 모양, 크기, 배열에 의해 우리 감각에 나타나는 것이다.

토머스 홉스는 세계는 운동하는 물체의 집합이며 인간의 사고 역시 신체 내부의 물리적 운동으로 설명된다. 인간의 감각과 사유 또한 외부 물체가 인간의 감각기관을 자극하여 나타나는 내부적 운동이다. 생각하는 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연산 과정과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모든 현상이 원인과 결과라는 물리적 법칙 아래에 존재하기에, 인간의 자유의지조차 특정한 원인에 의해 촉발된 필연적인 결과이다.

카를 마르크스는 역사적, 변증법적 유물론을 펼쳤다. 단순히 세상이 물질이다라는 명제에서 벗어나 어떤 물질적 조건이 인간의 생각을 만드는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카를 마르크스는 내가 먹는 것, 어떻게 일하는지 등 물질적 조건이 나의 가치관, 종교, 철학을 형성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의 본질을 토대, 즉 경제로 파악하고 문화와 의식 등에 해당하는 상부 구조는 토대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물질적 조건이 발전하는 토대의 변화가 나타나면, 기존의 사회 질서와 충돌하게 되고 이 모순이 폭발하며 역사가 진보한다.

> OX 확인 퀴즈

- 유물론은 정신이나 의식이 물질보다 더 근원적이며, 물질은 정신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O / X)
- ② 유물론적 관점에 따르면, 세계는 인간의 인식이나 관념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O / X)
- ③ 유물론에서는 인간의 모든 사고나 감정은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운동이나 연산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O / X)
- ④ 유물론적 역사관에 따르면, 한 사회의 도법, 종교, 철학 같은 상부 구조는 그 사회의 경제적 조건과 독자적으로 형성된다. (O / X)
- ⑤ 유물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 또한 특정한 물질적 원인에 의한 결과로 파악하기도 한다. (O / X)

03) 연계 코멘트

자주 접할 수 있어 익숙한 제재이긴 하지만, 여전히 출제하기 좋은 지문이다. 단독 개념으로는 출제되기 어려울 것 같으나, 인공지능 등 다른 주제와 엮어서 출제하기에는 여전히 매력적인 주제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갈피를 미리 잡아 놓는다면 관련 지문이 연계로 출제되었을 때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빠른정답
O X X O O
X O O X O